



Received: 2026/02/19
Revised: 2026/02/27
Accepted: 2026/03/16
Published: 2026/03/31

***Corresponding Author:**

Jeong-Hyun Kim

Shinsung Apt. 206-1101, Seogeumam 5gil 9,
Gyeryong-Si, Chungnam, 32828, Republic of Korea
Tel +82-42-878-2428
E-mail: kimjhnav@naver.com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비교 연구: 조미니와 마한 전략사상의 창의적 만남과 현대적 함의

A Comparative Study of Land Strategy and Maritime Strategy: The Creative Convergence of the Strategic Thought of Jomini and Mahan and Its Contemporary Implications

김정현*

해군대학 해양 전략·전략학처 교수

Jeong-Hyun Kim*

Professor, Dept. of Maritime Strategy and Force, Republic of Korea Naval War College

Abstract

본 연구는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구조적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조미니(Antoine-Henri Jomini)와 마한(Alfred Thayer Mahan)의 전략사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조미니의 결정적 지점과 전력 집중 개념, 마한의 제해권과 해양력 이론을 중심으로 두 전략의 공통 구조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현대 A2/AD 전략과 네트워크 중심전, 미·중 해양 경쟁 사례를 통해 고전 전략이 현대 다영역 작전 환경에서도 유효한 분석틀을 제공함을 논증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land strategy and maritime strateg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rategic thoughts of Antoine-Henri Jomini and Alfred Thayer Mahan. By focusing on Jomini's concepts of the decisive point and concentration of force and Mahan's theory of sea control and maritime power, this study identifies a shared strategic logic underlying both domains. Furthermore, by linking these classical principles to contemporary concepts such as anti-access/area denial, network-centric warfare, and the maritim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United States, this paper argues that classical strategic theory continues to offer analytical relevance in the modern multidomain operational environment.

Keywords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
전력 집중(Concentration of Force),
해양통제(Sea Control), 해양력(Maritime Power),
해상 교통로(Sea Lane of Communication)

1. 서론

전쟁의 양상은 시대적 조건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전략의 본질적 문제, 즉 제한된 자원을 결정적 시간과 공간에 집중하여 전략적 효과를 창출하는 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지상과 해양이라는 상이한 작전 환경은 국가 전략의 형성과 수행 방식에 구조적 차이를 초래해 왔다. 지상전략은 영토 통제와 군사력의 직접적 충돌을 중심으로 발전한 반면, 해양전략은 해상교통로 통제와 경제적 우위를 통한 간접적 압박에 중점을 두어 발전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작전 영역의 구분을 넘어 국가 권력의 행사 방식과 전쟁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19세기 전략사상은 이러한 두 영역의 이론적 기초가 체계화된 시기였다. 조미니(Antoine-Henri Jomini)는 전쟁을 과학적 원칙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집중·내선·결정적 지점 등의 개념을 통해 지상작전의 보편적 법칙을 제시하였다. 반면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이러한 원리를 해양 환경에 적용하여 제해권과 함대 집중의 개념을 국가 경제력과 결합된 대전략 차원으로 확장

하였다. 두 사상가는 서로 다른 작전 공간을 다루었지만, 전략을 체계화하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구조적 차이를 조미니와 마한의 전략사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제시한 원칙이 현대 전략 환경에서도 어떠한 설명력을 갖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상전과 해양전의 개념적 특성을 구분하고, 이어 두 전략가의 핵심 이론을 비교·검토한 후 그 전략적 함의를 재해석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지상과 해양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전략 사고의 공통 원리를 도출하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분석 틀을 제공함을 밝히고자 한다.

2.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개념 고찰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역사적 발전과 그 비교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 이후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개념을 정의하겠다.

2.1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역사적 발전

인류가 태동하면서 그 주무대는 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가 도구를 점차 활용하면서 각종 기술들이 축적됨에 따라 배를 만들어 강과 하천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먼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혀나갔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농업혁명을 거치게 되면서 씨족사회와 부족사회 단계를 거치면서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면서 전쟁을 심화시켜 왔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인류는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본격적으로 항공기가 전쟁에 투입되기 전까지 인류는 지상과 해상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여 왔다. 즉 다시 말하면 지상과 해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연구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안의 역사적 발전을 크게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전략의 역사적 발전이다([1]; [2], pp. 22-26; [3]). 지상전략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및 동방원정

과 로마의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걸친 팽창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중세 봉건시대의 전쟁은 지형적 조건에 의해 동양과 서양이 각각 분리되었으나 이슬람 제국과 당의 탈라스 전투 및 칭기즈칸과 자손들의 유럽원정 등은 전쟁의 세계화 시대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 근대는 나폴레옹 전쟁을 기점으로 국가 총력전 개념이 대세가 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제1·2차 세계 대전의 참호전·전차전으로 발전했다. 19세기 프로이센의 총력전 개념(클라우제비츠 영향)이 육군 중심 전략을 체계화했으며, 냉전기에는 소련의 대규모 지상군과 NATO의 방어 중심으로 정점에 달했다. 현대에는 드론·정밀유도무기 도입으로 기동성과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전환 중이다.¹⁾ 이로 볼 때 지상전략은 무기체계의 공간 확장성에 따라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해양전략의 역사적 발전이다.²⁾ 고대의 주요 해전은 살라미스 해전과 포에니 전쟁 시의 로마와 카르타고 간 지중해 제해권을 놓고 충돌한 전쟁을 꼽을 수 있다. 중세 봉건시대의 전쟁은 잉글랜드 vs 프랑스 간의 백년전쟁 초기의 결정적 해전으로 슬뤼스 해전(1340년)을 들 수 있고,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베네치아 vs 제노바 간의 지중해 상업 패권 경쟁을 위한 치오자 해전(1379-1380년), 그리고 유럽과 오스만 세계의 세력 균형을 뒤흔든 대규모 해전으로 손꼽을 수 있는 기독교 연합 함대가 오스만 제국 해군을 격파한 레판토 해전(1571년)을 들 수 있다([4]; [5], pp. 3-31; [6], pp. 123-214).

근대의 시작은 비잔틴 제국의 멸망(1453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해전은 유럽과 오스만 세계의 세력 균형을 뒤흔든 대규모 해전으로 손꼽을 수 있는 기독교 연합 함대가 오스만 제국 해군을 격파한 레판토 해전(1571년)을 들 수 있다. 또한 신대륙으로부터

1)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전쟁의 역사는 버나드 몽고메리 저, 송영조 역, 『전쟁의 역사』 참조할 것; 병력·화력·기동 중심 그리고 현대분란전 등 1-4세대 전쟁관련 내용은 William S. Lind 등 5명,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pp. 22 - 26.를 참조; 그리고 토마스 햄즈가 4세대 전쟁을 체계화하면서 5세대 전쟁은 "네트워크 기반 장기 소모전"으로 확장시켰다; 마지막으로 6세대 전쟁은 러시아 군사전략가인 예프게니 메스너(Yevgeny Messner)가 현대 전쟁은 국가 간 정규전이 아니라 사회 내부 붕괴를 목표로 하는 전쟁으로 바뀐다고 주장하였다.

2)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안의 해전의 패러다임 변화는 플랫폼, 추진력, 주요 무기체계, 전투 방식, 그리고 합동작전 등으로 분류하였고, 각 시대별로 주요 해전과 무기체계의 발달을 동시에 다루었으니, 이 논문의 참고문헌 [5] 참조 바람.

Table 1. Major cases and characteristics of land strategy and maritime strategy

Era	Land Strategy	Maritime Strategy
Ancient and Medieval Period	Expansion of the Roman Empire, The Mongol Cavalry Invasions of Europe (Heavy Infantry / Cavalry, Territorial Conquest-Centered Strategy)	The Punic Wars between Rome and Carthage, The Battle of Sluys (1340), The Battle of Chioggia (1379-1380) and The Battle of Lepanto (1571) (Oared galleys and archery, Limited maritime control over specific sea areas)
Early Modern Period	The Napoleonic Wars and Total War (Massed infantry and artillery)	The Era of Maritime Supremacy of Spain, the Dutch Republic, and Great Britain (Sailing ships / Steamships, The battleship-centered big-gun doctrine, Command of the sea and naval blockade)
Modern Era	World War Era WWI: Trench warfare, WWII: Tank warfare/Airborne operations (Attrition and maneuver warfare)	WWI: The Battle of Jutland (Battleships/Submarines, Torpedoes/Aircraft, Sea control/denial, Convoy), WWII: Unrestricted submarine warfare, (Aircraft carrier warfare, Sea control/Convoy)
	Cold War Era	NATO vs The Warsaw Pact (Integrated with nuclear deterrence strategy) USA: 'Maritime Strategy' USSR: 'Balanced Fleet'
	Post-Cold War Era	Network-centric warfare and hybrid warfare (Drones/AI) A2/AD, DMO, Ghost fleet (Aircraft carrier warfare-Missile/AI)

터 부를 탈취한 스페인의 해양패권 시대가 등장하였고, 이어서 짧게 네덜란드의 해상무역 독점 시대, 그리고 스페인은 칼레 해전(1588년)으로 영국에게 패전후 해양패권을 점차 축차적으로 내어주게 된다. 이후 영국은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와의 트라팔가 해전(1805)을 정점으로 하여 해양패권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현대가 시작되는 제1차 세계대전 시 독일과의 유틀란드 해전과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영국의 국력이 쇠퇴하여 해양패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게 된다([7], pp. 144-150).

한편, 냉전기에 이집트의 오사/코마급 함정에서의 함대함 미사일 발사로 이스라엘 엘리아트 함 격침으로 미사일 시대가 개막(1967년)되었으며,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라타키아 해전(1973)은 최초의 미사일 해전으로 기록되었다. 미국은 'The Maritime Strategy'(1986년)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전진배치·다영역 작전을 강조했고[8], 이에 맞서 소련은 균형함대론(balanced fleet)을 주장하였다[9,10]. 탈냉전기 미국은 해양에서의 우세(advantage at the sea)를 내세우고, 중국은 A2/AD(반지역/접근거부) 개념 하에 적극 근해방어/원양방어를 주장하고 있다.

2.2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역사적 발전 비교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발전과 더불어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상전략은 고대부터 대륙 중

심의 제국 확장과 영토 방어를 목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해양전략은 근대 이후 해상 교통로 장악과 해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통제와 더불어 패권 유지를 목표로 진화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상전략은 대규모 보병과 기갑 중심의 결정적 전투를 강조한 반면, 해양전략은 제해권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전투와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차단하는 해상봉쇄를 통해 간접적 승리를 추구하는 점에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두 전략은 지정학적 조건과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상호 경쟁하며 발전해왔고 동시에 상호 간 전략에 영향을 미쳐왔고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2.3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개념 정의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 크게 목표, 작전공간, 주력 수단, 시·공간적 특성, 그리고 사고방식 등 5가지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목표에 대한 비교이다. 지상전략은 적의 정치적 중심지인 수도를 포함하여 영토 점령과 더불어 적 지상세력을 격멸하는 것이다. 해양전략의 목표는 아측은 해양 사용 보장하고 반면에 적의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작전공간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지상전략(지상군)은 작전의 주공간이 고정된 영토이며 산(나무, 숲)과 도시의 건물 등 지형지물에 의해 은폐와 엄폐가 가능한 육지, 즉 지상이다. 그러나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land strategy and maritime strategy

Distinction	Land Strategy	Maritime Strategy
Goal	Occupation of territory, Defeat of enemy ground forces	Assured access to the maritime domain(Sea Control) and Enemy use denial, Protection of sea lines of communication.
Operational space	Emphasis on fixed geographic features	Centered on the open sea (Dynamic maritime environment)
Primary means	Ground forces(Infantry, Armor, Artillery... etc.) + Mobilized reserves	Naval and maritime security capabilities + Mobilized reserves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Relatively defined battlefield, Severely limited by geographical features, Sustained and attrition-focused engagements.	Fluid nature of the battlefield, Characterized by a wide operational maneuver space, Operations characterized by control, denial, and maneuver.
Linkage with national power	Primarily aligned with national power components such as military, population, and industry.	Integrated with maritime capabilities beyond the navy

해양전략(해군)은 주 작전공간이 개방된 공간 중심으로 바다, 강, 호수³⁾ 등으로 은폐와 엄폐가 불가능하다 [10]. 세 번째는 주력 수단이 다르다. 지상전략은 지상군(육군)이며 주요 병종은 보병·기갑·포병 등과 지상 기반 항공세력을 들 수 있다. 해양전략은 해군(수상전력, 수중전력, 항공전력 등)·해경·해병대 등 해양안보 세력 등이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동시에 병력, 물자, 장비 등을 포함한 각각의 예비동원전력도 포함한다. 네 번째는 시간·공간면에서도 다른 특성이 있다. 지상전략은 전선이 비교적 명확함과 동시에 지형 제약이 크며, 전투가 지속되며 소모전 양상을 띤다. 해양전략은 전선이 유동적이고 기동 범위가 넓으며, 해양통제를 위해 차단과 시위를 위한 기동 위주의 작전 양상이나 상대측과의 격전 시에는 전투행위가 단기결전 형태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국력 연계 부문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상전략은 주로 군사력·인구·산업 기반과 연계되나, 해양전략은 해군력 외에 해운·무역·수산·조선·자원체계(법)·해양자원 등을 종합한 해양력(maritime power)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주요 특성 다섯 가지의 개념들인 목표, 작전공간, 주력 수단, 시·공간적 특성, 그리고 사고방식 등을 놓고 비교하여 보면 지상전략은 대체로 결정적 전투와 지형 장악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해양전략은 제해권(절대적인 해양통제)과 해양우세(상대적인 해양통제)와 같이 지속적·상대적 개념 하

에 해양을 운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해양통제 상태를 중시하며 전쟁지속능력과 연계된 통상과피와 봉쇄작전 등을 중요시하는 데에서 특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양전략은 바다에서 직접적인 교전과 더불어 전쟁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상륙작전 지원 등 전략적·간접적 효과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Table 2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특성과 연계하여 핵심사상들을 비교하여 놓은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차이점을 목표, 작전 공간, 주력 수단 등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특이성을 쉽게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앞에서 논의한 바를 중심으로 먼저 해양전략을 정의하면, “국가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양력을 준비하고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해양전략의 개념을 바탕으로 재정립한 지상전략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상세력을 준비하고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⁴⁾

한편,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 중에 지상전략가 조미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양전략가 마한은 조미니가

3) 볼리비아의 티티카 호수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호수 중 하나로, 해발 약 3,812 m에 있으며, 면적은 약 8,300 km², 세계에서 항해가 가능한 호수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티티카 호수의 평균수심은 약 100 m, 최대수심은 280 m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볼리비아 해군이 상주하며 훈련을 하고 있다.

4) 다수의 국제정치학자들과 군사전략가들은 지상전략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지상전략은 여러 구성요소들이 상호 간에 복잡하게 중첩되고 얽혀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상전략은 군사전략과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굳이 정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과학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항공기, 잠수함 등과 같은 무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러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박창희는 지상전략을 협소하게 “지상에서 주로 작전이 이루어지는 전략”으로 정의하였다.

주장했던 지상전략이 해양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창의적인 접맥을 시도하였다.

3.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창의적 만남: 조미니 vs 마한의 전략사상

조미니(Antoine-Henri Jomini)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여러 전투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전쟁의 원칙을 체계화하였다([11], pp. 67-94). 그리고 마한은 조미니의 지상전 원칙을 해전의 원칙으로 재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11], pp. 25-58). 먼저 조미니의 지상전략의 다섯 가지 핵심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후에 마한이 이를 어떻게 해양전략에 창의적으로 적용하였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3.1 조미니의 주요 주장

조미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보편적 원칙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지상전에는 불변의 과학적 원칙이 있다고 보았다([11], pp. 15-18).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에 대한 개념으로 조미니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공간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결정적 지점은 특정 전투만이 아니라, 전구·전장 전체에서 그곳을 장악하면 적의 전체 체계가 붕괴하는 전략중심이다. 전략중심은 적의 수도, 주력군, 주요 교차로, 보급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미니의 주장을 구체화시키면, 항상 적국의 조직된 군사력, 즉 주력군이 주요 목표였던 것이다. 이에 모든 작전은 이 결정적 지점을 향해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 pp. 70-74). 즉 다시 말하면, 전투에서의 승리는 결정적 지점을 정확히 선택하고 집중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장(battlefield)에서 병력 집중의 원칙(concentration of force)이다. 조미니는 병력 분산을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보았다. 부차적 전선에는 최소한의 병력만 배치하고, 주력은 결정적 지점에 압도적 우세를 형성하여야 한다. 분산 기동을 통해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가급적이면 상대방보다 아군의 병력을 우세하게 배치하여 집중타격할 때 승리할 가능

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11], pp. 65-69). 적보다 수적 열세일 때도 집중적인 타격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내선(interior lines) 작전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여러 적을 상대할 때, 중앙적 위치(central position)를 차지하여 적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이동 거리와 빠른 기동을 활용하여 전력을 집중하여 적의 부대를 각개 격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이는 역으로 상대방에게 포위당하고 동시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주공격과 보조 공격/방어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가운데 전장을 운영하여야 한다([11], pp. 78-82).

네 번째는 작전선(line of operations)을 강조하였다([11], pp. 84-90). 작전선이란 전력의 이동과 보급이 연결된 경로를 의미한다. 이 작전선은 단순하고 짧을수록 유리하며, 이 작전선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군의 기동이 매우 중요하며, 아군의 적절한 기동 후 배치로 인해 적의 작전선을 차단하면 전투 없이도 승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적의 전투지속능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상작전에서는 전장의 지형분석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공격과 부공(부차적·보조적 공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11], pp. 7-19). 조미니는 “병력의 주력은 결정적 지점에 집중되어야 하며, 분산은 곧 약화를 의미하고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반드시 하나의 주공(main effort)만 존재해야 하며, 부공은 기만이나 고정 임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여러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다수의 결정타를 동시에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였다([11], pp. 7-19).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결정타를 노리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려는 군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미니가 주장했던 전쟁 승리의 과학적 원칙은 간단 명료했다. 조미니에 의하면,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 아군의 전력을 집중하여 적의 세력을 각개 격파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5) 마한은 중앙적 위치를 지브롤터, 몰타, 카리브해, 북해 등으로 보았다. 이런 위치는 적의 통상로를 동시에 위협 가능하며, 또한 여러 해역으로 빠르게 전개 가능한 곳으로 보았고 해상패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으로 보았다.

있는 보편적 원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미니의 전략사상을 마한은 해양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고 국가 발전의 대전략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켰다.

3.2 마한의 창의적 주장

조미니 사상이 마한의 해양전략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마한만의 주장을 논의할 것이다. 마한은 조미니를 면밀히 연구하며 해양전략의 ‘보편적 법칙’을 도출하려 했다. 조미니가 지상전에서 ‘전쟁에는 불변의 과학적 원칙이 있다’고 본 것처럼, 마한도 해전 역시 역사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보편 법칙에 따른다고 보았다. 마한은 조미니의 전략 사상을 해양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특히 결정적 지점에서의 병력(전력) 집중과 적 주력 격멸은 조미니에서 마한으로 직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결정적 지점(point décisif)에 대한 개념이다. 마한은 조미니의 결정적 지점 개념을 해양 공간에 적용하였다. 그에게 해협·운하·석탄 및 연료 기지와 같은 전략적 해상 거점은 제해권을 좌우하는 결정적 지점이었다[12]. 특히 그는 적의 주력함대를 격멸하는 것이 제해권 확보의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이는 바다에서의 결정적 지점이 단순한 지리적 거점이 아니라, 적의 조직된 해군력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13], pp. 35-63). 마한에게 제해권이란 “적의 국가가 바다에서 거의 보이지 않거나 극히 미미하게만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곧 조미니식 결정적 우위 확보의 해양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13], pp. 40-45).

두 번째는 전장에서 병력 집중의 원칙(concentration of force)이다. 마한은 “함대를 결코 나누지 말라(Never divide the fleet)”는 원칙을 강조하였다([13], pp. 735-740). 이는 조미니의 병력 집중 원칙을 해군력 운용에 적용한 것이다. 그는 1781~1782년 영국·프랑스 해군 사례를 분석하며, 프랑스가 함대를 분산함으로써 카리브 해에서 전략 주도권을 상실한 반면, 영국은 집중된 주력함대를 통해 프랑스 전력을 각개 격파했다고 설명하였다([13], pp. 760-780). 결국 해상 패권은 단일하고 강력한 결전함대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으며, 분산은 곧 약화라는 점에서 조미니의 논리와 일치한다.

세 번째는 내선(interior lines) 작전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한에게 내선의 의미는 더 짧은 해상이 동선과 집중된 기지 체계를 의미하였다. 내선을 확보한 해군은 빠른 집결과 안정적 보급이 가능하여 분산된 적 함대를 각개 격파할 수 있다([13], pp. 35-63). 그는 중앙적 위치(central position)를 전략적 해협·기지·항로의 중심을 차지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지브롤터, 몰타, 카리브 해, 북해 등은 그러한 전략적 중심해역의 사례로 제시되었다([13], pp. 200-215). 이러한 위치는 복수해역으로의 신속 전개와 적 통상로 동시 위협이 가능하므로, 해상 패권 유지의 핵심 축이 된다. 또한 내선은 해상교통로와 보급선 통제를 용이하게 하므로, 기지 배치와 항로 통제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13], pp. 210-215).

네 번째는 작전선(line of operations)을 강조하였다. 마한은 조미니의 작전선(lines of operation) 개념을 해군 중심으로 재해석하였다. 그에게 작전선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해상 통제를 형성하는 전략 구조였다([13], pp. 300-320) 작전선은 함대의 기동 항로이자 보급과 무역을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로, 해전의 생명선이었다. 그 목적은 적 함대를 격멸하고 적의 해상 교통을 차단함과 동시에 아축 해상 교통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13], pp. 330-345). 따라서 작전선은 바다에서 함대의 집중과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반적 전략 구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공격과 부공(부차적·보조적 공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11], pp. 67-74). 마한 역시 해양전략에서 주공은 강력한 주력함대를 집중하여 적 결전함대를 격멸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부공은 항구 공격, 식민지 압박, 무역선 나포 등 부차적 작전에 해당한다([13], pp. 600-630). 그는 무역약탈(crossing commerce)보다 결전함대 격멸을 우선시하였다. 적 함대를 파괴하면 그 국가의 해양활동 전반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산된 소규모 해전이 아니라 단일·강력한 결전함대 중심의 전략이야말로 제해권 확보의 본질이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결론적으로 마한은 영국의 프랑스에 대한 대륙 봉쇄와 해상지배 사례를 역사적으로 연구하였다. 그와 같은 영국의 해양사를 연구하여 도달한 결론은 해상교통로의 장악과 적의 해상교통로 차단이 평시에는 국부를 창출하고 전시에는 경제력·전쟁수행 능력을 결정하여 전승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

Table 3. Comparing the principal strategic doctrines of Jomini and Mahan

Distinction	Jomini	Mahan
Level of war	Operational Art/Tactics	National Strategy/Maritime Strategy
Focus of effort	Land Forces Theater and Battlefield (Main forces on the interior lines)	Main (Decisive Battle) Fleet
Decisive Point	Theater-level decisive point targeting the enemy's system (Adversary's Main Forces, Lines of Communication, Capital), Spatial and maneuver conditions are critical to operational success.	Naval battles and maritime areas linked to sea control, Destruction of adversary naval forces with subsequent economic and political effects.
Methodology	Consider interior and operational lines, maneuver forces, identify decisive points, and concentrate combat power.	Avoid dispersing the fleet and concentrate forces to achieve victory in the decisive naval battle.
Combat Effects	Destruction of the adversary's main army → Control of the Theater → Determine the military outcome of the war.	Secure control of the sea → Disruption of maritime traffic and commerce → This has a direct impact on the country's economy and its war-sustaining capability

석이다.

이상의 조미니와 마한의 핵심 주장을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미니와 마한의 결정적 지점과 전력집중의 개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조미니와 마한은 모두 “결정적 지점에서의 집중”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지만, 조미니는 내선에서 기동 우위를 활용해 적의 분산된 전력을 하나씩 각개 격파하기 위해, 시간·공간상 유리한 지점에 전력을 모으는 것으로써 육지에서의 전장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마한은 결전함대로 적의 주력함대를 격멸함으로써 해양의 장악보다는 해양통제와 이로 창출되는 국가의 무역(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조미니의 작전선은 지상군의 보급선 개념이 강하고 협소하여 전술/작전술 수준이지만, 마한에게는 작전선은 해상교통의 통제선으로써 국가의 부와 전쟁 능력을 지탱하는 구조와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광의의 경제·보급·정치적 효과까지 연계 및 고려하여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략 및 국가 전략임을 알 수 있다.

한편 Table 3는 조미니와 마한의 주요 주장을 비교한 것이다. 조미니의 전략사상을 바탕으로 마한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재적용을 하였는지에 대해 다시 주장의 수준, 집중의 대상, ‘결정적’ 개념의 의미, 방법론 전쟁상 효과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그 차이를 명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전략가 모두 적보다는 아측의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통해 결정적 결과를 얻는 집중이라는 틀은 공유하지만, 조미니는 지상에서의 공간·기동 중심의 결정적 지점, 마한은 해상에서의 함대·

제해권·경제를 한꺼번에 묶는 결정적 해전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사례와 더불어 전개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을 역사적 발전 과정과 개념적 구조를 통해 비교하고, 이를 조미니와 마한의 전략사상이라는 이론적 축 위에서 재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은 단순히 작전 공간의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전쟁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방식 자체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지상전략은 결정적 전투와 영토 장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병력 집중과 기동을 통해 적의 군사력을 직접 격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해양전략은 해양통제를 통해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국가 경제력과 연결된 장기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본질적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조미니와 마한의 전략사상 비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조미니는 전쟁을 과학적 원칙으로 설명하려 하였고, 결정적 지점에서의 집중과 내선 기동을 통해 적을 각개 격파하는 작전술적 차원에서 그 체계를 정립하였다. 반면 마한은 조미니가 주장한 지상전 원칙을 해양 환경에 창의적으로 재적용하면서, 함대 집중과 결정적 해전을 국가의 경제력·무역·해상교통로 통제와 연결시켰다. 즉 조미니가 전구 수준의 군사적 승리를 강조했다면, 마한은 제해권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으로 증폭시키는 대전략적 관점으

로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해양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차원의 전략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과 결합된 종합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1세기 전략 환경은 과거와 달리 지상·해양·공중·우주·사이버 영역이 상호 연결된 다영역(multi-domain)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16]. 그러나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전략의 본질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정밀타격·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결정적 지점에서의 집중’이라는 고전적 원리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A2/AD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동중국해·남중국해 일대에서 접근거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특정 해역을 전략적 ‘결정적 공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미사일과 세계 최대의 수중전력과 항공 전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상대의 작전선을 차단하려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한적 제해권 개념의 현대적 변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14,15]. 동시에 이는 조미니가 강조한 작전선 차단과 집중 타격의 논리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해군을 중심으로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 차원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를 통해 전 영역의 센서·타격 체계를 네트워크화하고 있다[16,17]. 이는 나폴레옹 전쟁 시대 이후 전통적 의미의 병력 ‘집중’을 물리적 집결이 아닌 정보·화력의 동시 집중으로 전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미니의 내선에서의 병력기동 원리를 현시대의 디지털 네트워크 전장환경에 접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중 전략 경쟁은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라, 해상교통로와 전략적인 해협, 도서선 통제를 둘러싼 제해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상전력, 해군력, 공군력, 우주·사이버 역량이 통합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전략은 5차원을 고려하는 복합체계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을 결정적 공간과 시간에 집중하여 상대의 체계를 마비시키려는 사고는 조미니와 마한이 제시한 핵심 통찰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21세기 전략 패러다임은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대립이 아니라, 두 전략 체계가 기술적 진화

를 통해 재융합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략의 본질은 여전히 ‘언제, 어디에,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공간이 육지이든 바다이든 공중이든, 혹은 네트워크 공간이든 그 기본 원리는 지속되고 있으며 여러 체계가 연계됨과 동시에 통합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 [1] 버나드 몽고메리, 전쟁의 역사, 승영조 역, 책세상, 2007.
- [2] William S. Lind, Keith Nightengale, John F. Schmitt, Joseph W. Sutton, & Gary I. Wilson,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Marine Corps Gazette, VOL. 73, NO. 10, 1989, pp. 22-26.
- [3] Thomas X. Hammes, The Sling and the Stone, Zenith Press, 2006.
- [4] Jonathan Sumption, The Hundred Years’ War,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 [5] Jong-Kuk Nam, ‘Naval Warfare in the Mediterranean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Four Naval Battles Between Venice and Genoa,’ The Journal of Western History, VOL. 36, 2007, pp. 3-31.
- [6] 윤지강, 세계 4대 해전, 느낌이 있는 책, 2007, pp. 123-214.
- [7] 김정현, ‘역사속 해전과 무기체계 발달양상,’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17권, 제1호, 2013, pp. 144-150.
- [8] James David Watkins, ‘The Maritime Strategy,’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 112, NO. 1, 1986, pp. 2-17.
- [9] S. G. Gorshkov, The Sea Power of the State, Naval Institute Press, 1976.
- [10] 나무위키, 티티카카호.
<https://namu.wiki/w/%ED%8B%B0%ED%8B%B0%EC%B9%B4%EC%B9%B4%ED%98%B8> (accessed 2026.02.14.)
- [11] Antoine-Henri Jomini, The Art of War, G.P. Putnam & Co., 1862.
- [12] Alfred Thayer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Little, Brown and Company, 1890, pp. 25-58.
- [13]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2, 김주식 역, 책세상, 1993.
- [14] 후보(胡蓆), 머헨시대 이후 중국의 해양력, 이진성·이희정 역, 박영사, 2021, pp. 175-194.
- [15] 최윤식,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지식노마드, 2018, pp. 309-333.
- [16] 기창돈, ‘위성항법시스템과 글로벌 패권경쟁,’ 박영욱 외, 과학기술, 미래국방과 만나다, 지식노마드, 2018, pp. 23-32.
- [17] Ho-Sub Jung, ‘US Navy’s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Looking f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35, NO. 2, 2019, pp. 61-93.